

영화 <청년경찰> 속 '조선족'과 '대림동'의 문제적 재현

신 동 순*

<목 차>

1. 들어가는 말: <청년경찰>과 혐오표현
2. 조선족 혐오와 혐오표현 '조선족'
3. <청년경찰>과 '조선족' 혐오 생산
4. <청년경찰>의 '대림동' 재현 문제
5. 나오는 말: <청년경찰> 판결과 봉합의 시작

1. 들어가는 말: <청년경찰>과 혐오표현

2020년 3월 23일 빅데이터 전문업체 타파크로스가 지난 4년간(2016~2019) 소셜미디어의 게시글에 나타난 지역 이미지를 통계화했다. 구로구 가리봉동 관련 글 중 10개 중에 1개 즉 10.7%가 혐오로 이어졌고, 이태원 관련해서는 빈도가 10분의 1로 줄어 1.0%로, '프랑스 마을'로 알려진 서래마을 관련해서는 다시 그것의 3분의 1인 0.3%로 나타났다. 가리봉동에 대한 혐오의 식은 "조선족의 존재 자체가 혐오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세 지역의 감성어에도 "가리봉은 중국, 노동자, 쪽방, 불법, 베트남 등의 단어와 얽여 전체 언급량의 20%가 부정적인 내용"이었다. 특히 "영화 '청년경찰'과 '범죄도시'가 잇따라 개봉한 2017년 하반기에 가리봉동 버즈량이 평소보다 40% 늘었고 이는 미디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부교수(shinmar@sookmyung.ac.kr)

어 속 부정적 이미지가 가리봉동에 대한 혐오 담론을 부채질한 셈"이라고 분석한다.¹⁾ 데이터의 기간이 최근 4년간이고 대상 수량이 297만 8414건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말해준다. 중국인이나 조선족²⁾의 밀집 거주지 가리봉동과 대림동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차별과 편견, 혐오 의식, 나아가 이런 혐오를 이용한 음모론까지(차이나게이트 등) 어떻게 만들어지고 재구되는가?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형성되어 온 중국인이나 중국동포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정적인 의식은 매우 심각하다. 이는 중국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수교 직후 중국에 들어가 중국인과 중국 사회를 경험했던 그 시각에 갇혀 있음을 말해준다. 중국 역사나 사회발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는 무시된 채 중국은 낙후되고 가난하며 지저분한, 그리고 질서나 시민의식이 부재한 국가라는 인식이 고정화 되어 왔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후 중국 곳곳에서 엄청난 속도의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가 있었음에도, 중국의 80~90허우(90后) 또는 00허우(00后)라는 새로운 세대가 중국사회의 주도적 위치로 부상하면서 중국인들의 문화 수준이 크게 제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사고는 여전히 1990년대에 머물러 있는 모양새로 의식의 정체성(停滯性)을 보여준다. 수교 이후 '모국'과 '고국'을 찾아 귀환한 중국동포들을 우리는 우리 사회가 조장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빠져 편견과 왜곡으로 그들을 동포로 환대하지 못했다. 중국동포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혐오의식은 어느 지점에서 커다란 문제를 유발한다. 누구든 타인을 혐오할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 혐오는 또 다른 혐오를 낳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갇아 먹는다. 인간

1) 세계일보가 빅데이터전문업체에 의뢰해 2016년~2019년 4년간 소셜미디어(예를 들면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각종 커뮤니티 등)에 검색된 총 297만8414건 자료를 분석한 글이라고 밝고 있다. 안용성, 윤지로, 배영민, <"가리봉선 밭길 조심·서래마을은 맛집 천국" ... 외국인 거주지역 두 갈래 시선 [한국형 외국인 혐오 보고서]>, 《세계일보》 2020년 3월 24일, <http://www.segye.com/newsView/20200323515840?Ourl=daum> 2020년 5월 4일 검색.

2) 조선족과 중국동포 개념, 조선족은 중국 소수민족 중 하나의 개념으로 중국의 호명법이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우리사회는 중국 호명법을 그대로 가져와 조선족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이후 중국동포로 호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사회가 가진 부정적 의미로서 조선족을 기호화하여 '조선족'으로 기표하고자 하며, 중국동포는 현재 우리의 호명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은 존엄한 존재이며 고귀하다. 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진리이다. 인간 사이에 불평등과 차별, 혐오의식은 강력하게 거부되어야 한다. 국가나 제도, 법이나 미디어는 존엄한 인간을 넘어서 존재할 수 없고 인간의 존엄을 넘어서선 혹은 넘어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이 개입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미디어는 '대림동'들이나 '조선족'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해 왔다. 2010년 <황해>로부터, <청년경찰>과 <범죄도시>들이 '조선족'이나 '대림동', '가리봉동' 등 중국동포 밀집 지역에 대해 혐오 의식을 생산했다는 것에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감독들은 "냉전 시대 미국 영화에서 적군은 항상 러시아였다. 우리나라도 <신세계> 이후에 조선족이 적으로 나오는데 편견이라기보다는 영화적 장치로 봐주면 좋겠다."³⁾ 또 "범죄도시"는 주민들이 강력반 형사와 함께 나쁜 놈을 잡는 이야기라 중국동포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진 않을 것 같다"⁴⁾, 또 "사회적으로 소수자들이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고,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설명한다.⁵⁾ 하지만 이런 재현들이 특정인이나 소수자 집단을 혐오하게 한다면 매우 문제적이다. 표현의 자유나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결코 합리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청년경찰>이 개봉되면서 중국동포한마음회 등 국내 중국동포단체와 대림동 주민들이 영화 상영금지를 촉구하는 대림동 중국동포와 지역민이 결성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80만 중국동포를 악랄한 범죄자로 매도하지 말라"와 함께 제작사를 상대로 상영중지와 공개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⁶⁾ 공동대책위원회는 "영화 <청년경찰>의 차별적, 혐오적 표현 때문에 기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침해됐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3) 이오성, <중국 동포 혐오증은 흥행의 보증수표?>,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148> 2020년 6월 4일 검색.

4) 김예랑, <같은 조선족 다른 느낌>, <http://hei.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9207134H>, 2020년 6월 4일 검색.

5) 장보인, <"극중 조선족 범죄자, 불가피한 설정?" ... 반발에도 계속>, 2017년 10월 19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019000508>, 2020년 6월 4일 검색.

6) <'범죄도시' 개봉을 앞두고 또다시 중국 동포사회 들쭉이는 이유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002000207> 헤럴드경제 2017년 10월 2일자, 2020년 6월 3일 검색.

를 제출했다. 그들은 “영화 <청년경찰>, <범죄도시>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국영화와 미디어에서 중국동포를 폄훼하고 악인으로 등장시키는 경우가 잦아 중국동포 이미지 왜곡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해당기관에 권고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진정을 냈다”고 한다.⁷⁾ <청년경찰>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고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사는 “영화적 기법으로 사용된 재현물이 그들의 삶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감독이 조선족에 대한 혐오나 차별의 의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⁸⁾ 이른바 영화적 재현물로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제작사 측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대책위원회는 곧바로 항소를 진행했다. 그리고 2019년 9월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주최로 중국동포 혐오차별 철폐 범민족 통일대회를 열었고,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언론 미디어의 보수집단에 대한 혐오콘텐츠 생산과 유포를 즉각 중단을 요구하면서⁹⁾, 지속적으로 혐오와 차별을 문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긴 여정 끝에 2020년 3월 16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이것은 “예술 작품 속 이른바 ‘혐오’ 표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가 되었다.¹⁰⁾ 법원이 영화 <청년경찰> 제작사 <무비락>에게 “조선족 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인하여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꼈을 원고들에게 사과 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서 관객들에게 특정 집단에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표현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약속”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매우 유의미한 판결로 평가되었다.¹¹⁾

7) 최미량, <중국동포단체, “일부 영화들 차별적”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 2017년 11월 6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06163601&code=940202#csidxf2bc23b3550ee979c98931cb36a1aef, 2020년 6월 4일 검색.

8) 신정아, <‘회복적 정의’의 실현을 통한 새로운 연대와 소통: <청년경찰> 판결에 나타난 한국 영화의 인권감수성>, 《2018 인문콘텐츠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발표집》, 인문콘텐츠학회, 2018, 41-42쪽.

9) 조성은, <“‘중국동포=범죄자’ 편견이 제도도 자리잡고 있다” ‘중국동포 혐오차별 철폐 범민족 통일대회’ 열려>, 2019년 9월 9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56390?no=256390&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프레스이안(<http://www.pressian.com>) 2020년 6월 4일 검색.

10) 조명아, <“영화도 예외 아냐”, ‘조선족 혐오’ 첫 법적 책임>, <https://news.v.daum.net/v/20200617202819731>, 2020년 7월 3일 검색.

11) 이주민센터친구 보도자료, <영화 청년경찰 소송 법원 화해권고결정 제작사 <무비락>

본 논문은 법률적 해석을 내렸던 혐오표현(불편감과 소외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청년경찰>이 재현하는 '조선족'과 '대림동' 공간의 혐오표현 지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연관된 선행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먼저 송원찬의 <경계인: 한국 미디어 속 조선족 형상 연구: 영화 <황해>와 <청년경찰>을 중심으로>는 한국사회에서 조선족의 호명 개념과 맥락을 설명하며 한국영화들이 재현하는 조선족의 범죄 이미지를 분석하였고 "편견의 완성판"임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류찬열의 <혐오와 공포의 재현을 넘어 공감과 연대의 재현으로: 영화 《청년경찰》과 《범죄도시》를 중심으로>는 누스바움의 혐오와 오염의 개념으로 한국인과 '조선족'을 선과 악, 깨끗함과 더러움, 악당과 영웅으로 이미지화하는 것을 비판하며 혐오와 공포의 재현을 넘어 공감과 연대의 재현이 되기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경찰> 소송과정에 동행해 결국 1심에 반하는 화해권고결정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학술적 참여를 진행했던 신정아의 <한국 영화의 조선족 재현과 혐오표현의 문제 - <청년경찰> 손해배상 1심 판결을 중심으로>와 공동논문 <조선족에 대한 의사사회 상호작용과 유사현실 인식 연구: <청년경찰>(2017)을 중심으로>는 소송과정과 그 맥락 의미 및 텍스트 분석을 하고 있다. 광재석의 <다문화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다문화 시민단체의 역할: 영화 "청년경찰"을 통해 본 중국동포 시민단체의 사례>와 최인규와 전범수의 <영화 <청년경찰>, <범죄도시>에 나타난 범죄 장소로서의 다문화 공간 비교>는 다문화 공간으로 대림동과 범죄공간으로 재현되는 대림동/가리봉동 공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이 진행하는 혐오표현의 지점 분석은 송원찬과 류찬열, 신정아의 논문들과 연관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런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영화가 생산하는 '조선족'과 '대림동' 그리고 그 속의 혐오표현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플랫폼 전개에 따른 '조선족' 범죄의 지점과 대림동 내 '조선족' 공간이 어떻게 왜곡되고 구획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www.kci.go.kr

2. 조선족 혐오와 혐오표현 ‘조선족’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이주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특히 “조선족이 그 빈도와 중심성 측면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인들이 서구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에 분노하며 적대감을 표출하는 경우도 많았”¹²⁾다고 한다. 그럼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들은 왜 혐오의 대상이 되었는가? 그 역사적 맥락과 텍스트 생산을 살펴보자.

이들의 한국 유입과 교류는 정식적으로는 1992년 8월 24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외교관계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이하 공동성명문)의 발표로 한국과 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부터이다.¹³⁾ 그리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시작은 1996년 8월 2일 새벽에 발생한 페스카마호 사건부터라고 볼 수 있다.¹⁴⁾ 이 사건은 어로작업이 서툰다는 이유로 조선족들에게 한국인 선장이 폭력을 행사했고, 선장에게 하선 요청을 하자 사모아에 하선증명서 없이 강제하선을 결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선족 선원들이 새벽에 선장과 선원들을 살해 유기한 사건이다. 사건은 미디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갇혀진 공간인 선상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해와 유기라는 점만이 부각되었고, 선상에서 자행되는 선원 인권침해, 열악한 노동환경 및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조명되지 않았다. 당시 이런 뉴스를 접하며 일어난 상상과 그 상상이 주는 공포는 한국인들에게 극대화되었다. 이후 2004년 방문취업제 실시 후 중국동

12) 박미숙, 추지현,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4쪽.

13) <한중수교>, 다음 백과사전,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73749>, 2020년 7월 3일 검색.

14) 페스카마호 사건(PESCAMAR號事件)은 1996년 8월 3일경 남태평양에서 조업중이던 파나마 국적의 참치잡이 원양어선 페스카마호에서 선상반란이 일어나 한국인 선원 7명을 포함한 11명의 선원이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변호사였던 문재인이 변호하여 1심에서 사형이었던 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건으로 유명하다. https://ko.wikipedia.org/wiki/%ED%8E%98%EC%8A%A4%EC%B9%B4%EB%A7%88_15%ED%98%B8_%EC%82%AC%EA%B1%B4 2020년 6월 3일 검색.

포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그러면서 한국인과의 갈등, 보이스포싱, 불법체류, 살인자, 범죄 이미지가 고정화되어 갔다. 또 2008년 광화문 성화 봉송 및 북한 문제, 사드 배치 보복 등으로 한중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후 일명 “중국동포 3대 사건”이라 불리는 2012년 오원춘사건¹⁵⁾, 2014년 박춘풍사건¹⁶⁾, 2015년 김하일사건¹⁷⁾이 연이어 일어났다. 사건은 신문뉴스를 통해 자세히 보도되었고, 시체 훼손 정도까지 기사화되면서 한국사회는 중국동포 즉 ‘조선족’에 대한 혐오와 공포의식이 강화되었다.

미디어를 통해 사건들은 재구성되었고, 이를 토대로 ‘조선족’ 혐오나 편향을 드러내는 문화 텍스트들이 연이어 출현하기 시작했다. ‘조선족’이 나오는 영화는 2001년 <파이란>을 시작으로 2005년 <댄서의 순정>, 그리고 이후 2010년 <황해>, 2011년 <카운트다운>, 2012년 <공모자들>과 <차이나 블루>, 2013년 <신세계>, 2015년 <차이나타운>과 <해무>, <성난 변호사>, 그리고 2017년 <악녀>, <희생부활자>, <범죄도시>와 <청년경찰>, 2018년 <뷰티풀데이즈>와 <강철비>, 2019년 <우상> 등이다.

-
- 15) 오원춘 사건은 2012년 4월 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중국 조선족 남성이 한국 여성을 납치, 성폭행한 후 살해한 뒤 토막낸 사건이다.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EC%88%98%EC%9B%90_%ED%86%A0%EB%A7%89_%EC%82%B4%EC%9D%B8_%EC%82%AC%EA%B1%B4, 2020년 6월 3일 검색.
- 16) 박춘풍은 2014년 11월 26일에 발생한 수원 팔달산 토막 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춘풍은 2014년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집에서 자신이 동거녀 김아무개(48·중국 국적)를 밀자 그녀가 넘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내 사망하게 된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에 의하면 11월 26일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하고 그 다음날 오전 5시부터 11월 28일 오후 12시 30분까지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뒤 수원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2014년 12월 14일 구속되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B0%95%EC%B6%98%ED%92%8D> 2020년 6월 3일 검색.
- 17) 2013년 8월경 실종된 42살 남성 우 모씨의 시신이 머리가 잘린 채 2014년 3월 26일 시화호 매립공사 현장에서 발견되고 2008년 안양 초등학교 남치 살해 사건의 피해자 우예술의 시신 일부가 시화호 주변에서 발견된 것에 이어 2015년 4월 5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방조제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는 가방을 발견한 시화호를 찾은 관광객에 의해 42살의 조선족 여성 한 모씨가 살해된 채 시체가 토막내어진 등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고 경찰이 한 모씨의 동거인인 47살의 김하일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검거에 나서자 4월 7일 경찰에 자수한 사건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EC%8B%9C%ED%99%94%ED%98%B8_%ED%86%A0%EB%A7%89%EC%82%B4%EC%9D%B8_%EC%82%AC%EA%B1%B4, 2020년 6월 3일 검색.

<파이란>과 <댄서의 순정>, <강철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영화들은 모두 '조선족' 범죄자들이 등장하는 서사 구조를 띠고 있다. 이들의 모든 서사에서 '조선족'은 범죄자로 표상되었다.

한국영화에서 이들을 잔인한 범죄자들로 표상한 것은 <황해>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황해>는 중국 조선족 마을을 배경으로 하면서 면가나 구남 같은 조선족들을 돈을 위해서는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폭력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산발한 머리에 짐승 뼈다귀를 메고 다니는 면가의 모습이나 개고기를 먹고 있는 패거리들의 야만적인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 영화는 '조선족' 혐오표현의 대표적인 텍스트로 읽힌다. <황해> 이후 '조선족'은 범죄로 연결되었다. 또 개그콘서트의 <황해> 코너는 '조선족' 보이시피싱을 희화화하였고, 한국사회가 이들의 무식한 실수나 말투를 웃고 즐기는 사이 '조선족' 범죄에 대한 이미지는 대중화되고 한국인들의 의식에 각인되었다. 영화 <공모자들>에서는 "최근 몇 년간 벌어진 사건들을 재구성"했다는 자막과 함께 한국과 중국의 공해상에서 일어난 '조선족'의 장기매매 현장을 재현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자막은 관객들에게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정보의 사실성을 강조하였고, 그 사실성은 두려움과 공포를 배가시켰으며 왜곡된 상상을 제공하였다. <신세계>는 여수 화교 조직폭력배들의 살인청부업과 일명 "연변 거지들" 모습이 그려졌고, <차이나타운>은 채무자들로부터 신체 포기각서를 받고 장기매매를 하는 범죄를 다루었다. <해무>는 밀항자들로, <성난변호사>에서 장기매매자가 '조선족'이었고, <범죄도시>는 가리봉동 조선족 폭력조직들을 검거한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빛을 갓지 못한다고 잡아다가 칼로 찢어버리고, 지배인 팔을 잘라 버리는 장면과 그 일당의 모습은 폭력의 극치를 보여줬고, 마지막 체포 장면에서는 동물적 울부짖음으로 야만성(동물성)이 부각되었다. <우상>에서의 조선족 머느리 최련화와 관련된 살인사건 등등 모두 범죄에 연루된 '조선족' 형상들이 혐오의 대상이나 두려움의 존재로 고정화 되어 왔다.

미디어 속에서 이들에 대한 혐오표현은 어떻게 진행되고 그들을 혐오대상으

로 이미지화하는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혐오표현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¹⁸⁾이라고 한다. 온라인상에서 여성이나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 구성원이나 특정지역이나 특정직업 등에 대해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등장했고, 이때부터 우리 사회는 혐오표현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 정의가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 다만 학술적으로 혐오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의 국가적,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정체성을 표적으로 삼아 욕하는, 모욕하는, 괴롭히는 표현으로서 넓게는 집단 명예훼손(group libel), 또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존엄 또는 평판에 대한 공격을 포함하고, 좁게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된다.¹⁹⁾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문제 삼아 욕하고 모욕하고 괴롭히는 표현이고 공격과 증오 나아가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을 말한다.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유포하거나, 소수자를 멸시하고 모욕하며 위협하는 말, 또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incitement)²⁰⁾하는 혐오표현은 소수자를 사회로부터 배척하고 차별하며 소외시킨다.

2007~2017년 사이의 뉴스 기사 댓글에 나타난 '조선족' 혐오표현을 분석한 글을 보면, '조선족'을 “'범죄(자)', '불법', '사건', '짱깨(개)', '살인', '불체', '개', '새끼', '쓰레기', '외노', '토막', '강간', '사형', '차별', '성폭행', '추방', '욕', '범인', '살해', '사기', '처벌’”, “'한국말(말)', '일', '돈', '노동자', '취업', '동포', '인권', '한국인', '민족', '교포', '자국민', '한족’” 등으로 이미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 그리고 범죄 문제에 관련된 텍스트가 높은 빈도”를 보였고, 경제적 영역이나, “민족(동포)과 국적을 둘러싼 정체성과 관련된 텍스트들”이 빈번했으며, “살해당하고, 강간당하겠다와 같은 위협에

18) 박미숙, 추지현,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년, 35쪽.

19) Onder Bakircioglu, “Freedom of Expression and Hate Speech”, 16 Tulsa. J.Comp. & Int'l L. 1, 4(2008). 박승호,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방법>, 《법학논총》 31(2), 2019. 2, 52쪽 재인용.

20) 홍성수, <혐오표현의 세 가지 유형>, 《자음과 모음》(39), 2018, 223쪽.

대한 두려움과 같은 심리적 반응을 바탕으로 욕설 등 혐오표현뿐 아니라 ‘쓰레기를 내쫓아라’, ‘인종 청소하자’, ‘조선족 죽이고 싶다’ 등 위협과 온라인 공간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증오 선동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²¹⁾ 이런 혐오표현은 부단히 메시지를 생성하고 전송하며 그것을 사회구조의 일부분으로 이데올로기화한다. 그리고 차별과 편견의식을 만들어 내고 합리화한다. ‘우리’를 순수로 범주화하면서 타자들을 오염(더러운)된 이들로 배제시키며 배척하고 있다.

3. <청년경찰>과 ‘조선족’ 혐오 생산

한국사회에서 중국동포라 불리는 조선족에 대한 혐오는 어디에서 오며 우리는 혐오표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는가. 혐오에 대해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은 “혐오에 담긴 핵심적인 사고는 자신이 오염될 것이라는 생각이며, 혐오의 감정은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부를 표현한다”고 설명한다.²²⁾ 오염은 오염물의 근원인 동물의 배설물이나 분비물이 생산하는 전염에 대한 거부(공포나 두려움)를 만들어 낸다. 혐오는 “동물성을 간직한 동물의 분비물을 섭취(필자:또한 접촉)하면 우리 자신이 동물의 지위로 격하될 수 있다”²³⁾는 것에서 두려움을 내재하고 있고, 이는 역사적으로는 “특정 집단과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강력한 무기로 이용되어” 왔다.²⁴⁾ “모든 사회는 혐오와 같은 강한 감정을 통해 인간의 동물성이 드러나는 경계를 단속해” 왔으며, “이러한 단속과정이 한 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분 짓고, 집단

21) 한기덕, <이주민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연구 - 외국인노동자와 조선족 뉴스 댓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7. 12. 13-15쪽.

22) 마사 누스바움,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민음사, 2015, 186쪽.

23) 마사 누스바움,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민음사, 2015, 170쪽.

24) 마사 누스바움,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민음사, 2015, 201쪽.

내의 연대감을 높이는 데 유용한 역할"을 했다.²⁵⁾ 한국사회의 '조선족' 기호 생산에도 경계를 단속하는 이런 모종의 연대 의식이 은폐되어 있다고 본다.

한국 미디어는 중국 소수민족으로 호명되고 있는 조선족 그리고 우리 역사와 연계되고 있는 중국동포들이라는 비주류 집단(타자들)을 청결과 불결, 순수와 순수하지 않은 것으로 구획해 왔다. 류찬열은 한국영화 속 조선족에 대해 "스테레오 타입화된 조선족을 더럽고 거칠게 묘사하는 관행은 한국사회의 모순을 내부의 순수한 것 대 외부의 더러운 것으로 단순화하고, 이를 통해 선한 한국인과 악한 조선족이라는 이분법을 아무런 반성이나 성찰없이 재현"했으며, "깨끗한 우리와 더러운 그들"로 부단히 고정화시켜 왔다고 분석한다.²⁶⁾ 더럽고 잔혹하고 무식한 '조선족' 형상의 재현은 혐오의 속성들인 악취나 점착성, 부패와 불결함 등이 반복적으로 주류 집단들과 연계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이 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환상과 허위의식을 생산한다. 마치도 "유대인, 여성, 동성애자, 불가촉천민, 하층계급 사람들은 모두 육신의 오물로 더럽혀진 존재로 상상되었"²⁷⁾듯이 말이다.

<청년경찰>에서 조선족 혐오표현으로서 '조선족'의 지점은 어떤 의미생산을 하고 있는가. 먼저 영화는 경찰대학 학생 기준(박서준)과 희열(강하늘)의 시선을 서사 주체로 내세워 혐오적 '조선족'을 현시한다. 한국사회의 예비 경찰들과 범죄자 '조선족'들 사이에서 대립과 적대, 혐오의 감정이 강화되었다. 영화는 기준과 희열을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 중에 하나인 경찰서와 경찰대학의 대학생, 예비 경찰로 배치한다. 입학식 때 다 같이 복창했던 입학 선서 "나는 학칙을 준수하며, 경찰대 학생으로서의 명예와 긍지를 갖고, 책임과 임무를 다하여, 학업에 정진할 것을 선서합니다"는 경찰대학의 질서와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며 한편 예비 경찰 대학생의 순수함과 청결을 불러낸다. '정의로움'을 내

25)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민음사, 2015, 192쪽.

26) 류찬열, <혐오와 공포의 재현을 넘어 공감과 연대의 재현으로: 영화 <청년경찰>과 <범죄도시>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27, 2018, 04, 132쪽.

27)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민음사, 2015, 201쪽.

재한 순수하고 깨끗한 한국인 ‘우리’가 형상화되는 것이다. 기준은 미혼모 엄마 밑에서 자랐지만 반듯한 청년으로 학비가 무료라 경찰대학에 왔고, 희열은 서울과학고 출신으로 카이스트에 들어갈 수 있지만, 사회가 욕망하는 길을 가지 않고 특별함을 찾아 경찰대학에 입학한 청년이다. 이들의 이런 반듯하고 순수한 모습은 범죄자들로 등장하는 ‘조선족’ 무리들의 잔인함과 불결함이나 더러움을 더욱 강화하고 구분 짓는데 유용한 역할을 한다. 영화에서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는 ‘조선족’ 재현의 지점은 대림동 차이나타운 거리에 들어서서 택시 운전사의 “학생들, 이 동네 조선족들만 사는데, 밤에 칼부림도 많이 나요. 여권 없는 범죄자들도 많아서 경찰도 잘 안 들어와요. 웬만해선 길거리 다니지 마세요”라는 말에서 칼부림과 범죄자로 고정화된다. ‘조선족’을 범죄자로 확정하는 과정은 윤정의 납치와 난자 과배란 주사, 장기밀매 암시, 집단 폭행과 추격전, 산부인과 난자 적출과 집단싸움에서 진행되고 있고, 혐오표현의 지점들이다.

‘조선족’ 혐오표현은 먼저 여성을 납치해 난자밀매와 장기밀매를 하는 ‘조선족’들의 무자비한 대화를 통해서이다. 그들은 한밤중 길을 가는 윤정의 머리를 거침없이 가격해 쓰러뜨린 후 차에 태워 납치한다. 그들은 의식을 잃고 차 바닥에 쓰러져 있는 윤정을 내려다보며 황사장에게 30(만원)에서 이제는 50(만원)을 달라는 전화 통화를 한다. 윤정은 30만 원 짜리로 물화(物化) 되고 있으며, 관객은 전화 어투를 통해 그들이 ‘조선족’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대림동 어느 지저분한 폐건물에 갇혀 공포에 떨고 있는 윤정에게 강압적으로 과배란 주사를 놓는다. 그들에게 그녀의 신체는 다른 여성들처럼 난자를 만들기 위한 도구(인간이 아닌)일 뿐이다. 이때 클로즈업되는 ‘조선족’ 남성들의 얼굴과 주사기는 윤정에게 공포로 다가온다. 그들은 윤정을 제압하고 “약을 먹자”며 주사기를 배에다 무자비하게 찔러 놓는다. 그녀의 날카로운 비명소리는 어두컴컴한 그 공간에서 두려움을 생산하고 있다. 관객들은 기준과 희열의 동선과 시선에 따라 이 과정에서 난자와 장기밀매를 하는 조선족 조직폭력배들을 마주한다. 불친절한 종업원과 식당 한 쪽에서 마작을 하고 있던 이들, 그들은 기준과 희열의 얼굴과 머리를 무작위적으로 폭행하며 조롱한다. 지저분한

얼굴, 정돈되지 않은 수염과 긴 머리카락들, 냄새가 날 것 같은 옷차림새, 비열한 얼굴 표정들은 관객들을 불편하게 한다. 또 실실 웃어가며 “난자를 뽑는다, 주사를 놔서 난자를 뽑는다”, “걱정하지 마라, 난자를 뽑아도 덮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말하는 ‘조선족’의 희번뜩거리는 눈빛은 혐오감을 불러온다.

여성들을 구조해내는 과정에서 마주한 20여 명의 ‘조선족’들은 기준과 희열을 집단 폭행하고 정신을 잃은 그들을 장기 적출하는 공간에 동물처럼 매달아 놓는다. 여성들의 도구화된 신체들처럼 매달려 있는 기준과 희열의 신체도 장기 적출 대상(장기 적출을 위해 선을 그어 놓은 상태)으로 물화되고 있다. 그리고 관객은 어두컴컴한 공간에 집단으로 포개져 잠들어 있는 ‘조선족’들을 보게 된다. 제대로 된 침상도 이불도 없이 자신들의 겉옷을 덮고 킁킁이 누워 자는 이들의 모습은 배 안에 갇힌 밀항자들 모습을 연상케 한다. 도피하려다 들킨 기준과 희열을 향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는 그들의 모습은 매우 위협적이며 폭력적이다. 폐건물이 발각되자 ‘조선족’들은 윤정과 다른 여성들을 지지분한 지하로 옮겨 감금하고, 과도한 주사로 아랫배가 썩어들어가는 여성을 장기 적출의 목적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윤정이 그들에게 반항하지만 거침없는 구타와 폭력만이 존재한다. 산부인과 주차장과 병원에서의 대립은 정복을 갖춰 입고 경찰장비를 손에 든 기준과 희열에 비해 ‘조선족’들은 작은 키, 지지분하고 촌스러운 옷차림, 험악한 얼굴 표정들, 장칼과 도끼, 야구 방망이들로 한국 예비경찰 2인과 다수의 조직폭력배들 ‘조선족’으로 이미지화한다. 이는 질서와 무질서, 문명과 야만으로 구획하는 지점이며, 부정적 이미지의 타자들로 그들을 내치는 부분이다.

<청년경찰> 영화 속 ‘조선족’은 불결, 혐오, 공포, 두려움, 잔인함, 폭력, 미개함, 어둠, 실패 등의 기호로 의미화하고 있다. 한국 내 미디어 속에 깨끗하고 부유하며 성공한 ‘조선족’은 왜 부재한 것인가. 한국인의 중국동포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어느 지점에서 정지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조선족-악-수동-추방-타자: 한국인-선-능동-포괄-주체 등의 이분법적 계열화 위에서 민족의 공통성도, 이방인의 환대도 불가능”²⁸⁾한 것인가. 생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

점이다. 적극적으로 회의(懷疑)해 본다면 변화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영화 속 ‘조선족’은 <청년경찰>이 의도한 폭력과 불결, 미개함이나 무질서, 비인간적 무자비함 등 부정적 이미지 재현의 지점을 넘어서 또 다른 의미의 정치성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경찰> 속 한국인 의사(“알 많다”)나 권력에 순복하는 경찰들(재벌 손자를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경찰/ 경찰서장의 지시/ 파출소 순경/경찰대학 교수들) 등 권력의 부조리한 위계에 복종하는 한국 사회나 범죄자 한국인을 ‘조선족’ 혐오표현을 통해 그 허위와 거짓의 의미를 약화하고 은폐시키고 있음을 각성해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계질서나 이데올로기를 합리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타자들과의 경계를 단속하고 부단히 그들이 타자들임을 확정한다. 그러면서 ‘조선족’들이 “한국말을 하는 타자들”이고, “그래서 더 위험한 존재”이며 한국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친숙한 그러나 불편한 타자”²⁹⁾들이기에, 한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한국어(한국)에 익숙하고 중국어(중국)를 할 줄 아는 그들은 한국인들에게 “친숙”하지만 “불편”한 타자들로 인식된 것이다. 이런 이중의식은 한민족이지만 중국인, 중국인이지만 한민족이라는 그 사이에서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의 충돌과 모순을 내재하고 있다. 중국과 ‘조선족’/중국동포에 대한 한국사회 내면의 모순을 적확하게 마주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생각의 전환이 의식의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본다.

4. <청년경찰>의 ‘대립동’ 재현 문제

대립동은 “2호선 대림역 8번 출구를 통해 펼쳐지는 서울 안의 연변”이자, 서

28) 문제원, <고착되는 경계, 트랜스코컬리티의 불가능성 - 한국 영화에 재현된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28, 2015, 130-131쪽.

29) 송원찬, <경계인: 한국 미디어 속 조선족 형상 연구: 영화 <황해>와 <청년경찰>을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18(3), 2017, 12, 459쪽.

울과 연변을 이어주는 “통로로서 장소성”을 지닌다.³⁰⁾ 장소는 공간과 다르게 그 장소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사유나 감정 그리고 사회문화적 관계 등을 기반으로 경험을 통해 구축되는 것으로, 대림동이라는 장소는 ‘조선족’이라는 개별적 의미가 부여된 환경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림동 중에서 중국동포들의 생활 공간은 대림동 중앙시장과 가까운 7호선 12번 출구가 중심이다. 대림역 12번 출구를 나와 마주하는 경관은 연변 자치주 거리를 연상케 한다. 거리의 대부분이 중국어 간판이고 연변 조선족 사투리가 담겨있는 한국어가 일상적으로 들려온다. 이곳은 중국동포들 서로가 구매자이자 판매자로 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곳을 통해 그들은 동질의 문화와 민족의식을 공유한다. 이들은 여가활동이나 정보교환, 중국 음식이나 식료품 구매 등 대림동을 전유한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안 와요, 여기 거리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조선족이 더 많아요, 한국인들이 오더라도 음식점까지 와서 먹고 가거나 그런 일은 많지는 않죠,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늘긴 했는데 그래도 거의 매상의 90%가 조선족들이에요.”³¹⁾ 이처럼 일명 차이나타운 거리라고 하는 이곳은 중국동포들이 주류상권을 이루고 있으며, 서울과 연변을 이어주는 통로로써 ‘조선족’들에게 고향의 의미로서 장소화된 공간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조선족 거리는 비위생적이고 시끄러운 공간”, “가고 싶지 않은 곳”, “위험한 곳”으로 인지되면서, 이곳의 상권은 “철저히 한국적인 요소와 분리되는 경향”을 보여준다.³²⁾

<청년경찰>의 영화적 장치들은 “대림동”을 문화적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 아닌 혐오와 공포를 생산하는 불모성의 공간으로 묘사하고 재현³³⁾한다. 영화를 통해 형성된 대림동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위험해 보인다. 영화는 “고등학생들에게 조선족과 대림동은 기존의 뉴스와 영화, 드라마

30) 서지수, <서울 대림동의 조선족 '통로(portal)로서 장소성 형성>, 《지리학논총》 58, 2012, 59쪽.

31) 서지수, <서울 대림동의 조선족 '통로(portal)로서 장소성 형성>, 《지리학논총》 58, 2012, 61쪽.

32) 서지수, <서울 대림동의 조선족 '통로(portal)로서 장소성 형성>, 《지리학논총》 58, 2012, 61쪽.

33) 류찬열, <혐오와 공포의 재현을 넘어 공감과 연대의 재현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27, 2018. 04, 138~139쪽.

에서 보았던 범죄자 이미지를 강화시킨 것은 물론이고, 대립동이라는 공간을 실제적 범죄 공간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조선족을 더욱 배제하고, 혐오하는 근거를 제공하는³⁴⁾ 역할을 하였다. 영화는 대립동을 서울의 공간이 아닌 추방되어야 할 범죄자들이 집단 기숙하는 공간으로 이질성을 강화하였고 공포감을 유발하였다. 대립동 차이나타운에 접해있는 “대립역 12번 출구” 주변은 특히 범죄가 극대화된 공간으로 재현되고 있다.

대립동은 “한국 안의 낯설고 불쾌한 공간”³⁵⁾, 위험이 가득 잠재된 공간으로 묘사된다. 기준과 회열의 “한국에 이런 데가 있어”, “야 간판 봐 완전 중국이야 처음 본다”는 대립동의 이질성을 강화한다. 또 택시 기사는 이곳이 조선족들만 사는데 밤에 칼부림이 나고 범죄자들이 많아서 경찰들도 들어오지 않으려는 공간임을 확인해 준다. 즉, “대립동은 온갖 범죄와 불법이 판치는 소굴”³⁶⁾이며, “조선족들만 사는” 곳이며 “여권 없는 범죄자들도 많”은 곳이라는 전언은 대립동 차이나타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형성하는 지점이다. 이는 한국인들에게 대립역 하차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생산한다.

영화 속 대립동에 대한 혐오표현의 지점은 어디인가. 먼저 대립동 양꼬치 허강양육관(서울시 영등포구 대립동 1180-22/전화번호 02-833-4683)과 근처에 위치한 폐건물과 지하 감금시설(일명 난자공장), 또 근방의 장기 적출 공간과 조직폭력배들의 집단 기숙 공간을 재현하면서 발생한다. 이들 재현은 대부분 한밤중에 이루어진다. ‘조선족’의 공간은 칙칙한 불빛의 밤의 공간이지 밝은 낮의 공간이 아니다. 허강양육관은 대로가 아닌 어두컴컴한 골목 끝자락에 있고, 밝지 않은 내부 빛깔은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 색깔들의 액자 그림들과 무질서한 그림 메뉴들이 벽면에 부착되어 있다. 2층 폐건물 어두운 방마다 납치되어 온 여성들이 감금되어 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여성들의 목소리

34) 한희정, 조인숙, 신정아, <조선족에 대한 의사사회 상호작용과 유사현실 인식 연구-청년 경찰92017>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1), 2019. 02, 17쪽.

35) 류찬열, <혐오와 공포의 재현을 넘어 공감과 연대의 재현으로: 영화 《청년경찰》과 《범죄도시》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27, 2018. 04, 136쪽.

36) 류찬열, <혐오와 공포의 재현을 넘어 공감과 연대의 재현으로: 영화 《청년경찰》과 《범죄도시》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27, 2018. 04, 136쪽.

와 닫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져 공간의 음울함과 절박성을 드러낸다. 문을 부수고 들어간 방에는 열로 혼미한 앓된 여자아이와 더러운 이불, 피 문은 매트리스와 휴지들이 방안의 비위생과 비인간적 잔인성을 재현한다. 지하 감금시설은 씻지도 못하고 지저분한 병든 여성들이 두려움과 공포,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죽음 가득한 공간으로 묘사된다. 기준과 희열이 잡혀 매달린 곳은 장기를 적출하는 곳으로 상상되고 있다. 그들의 신체에 선이 그어져 있고 주변 벽이 모두 비닐로 덮여 있기 때문이다. 문을 열고 나선 곳은 '조선족' 조직폭력 배들이 기숙하는 공간으로 맨 바닥에 이불도 없이 잠을 자는 지저분하고 비좁으며 비위생적이다.

또 하나의 공간은 대림역 12번 출구 앞 도림로를 사이에 두고 한국인 거리와 '조선족' 거리로 구획되어 경계가 만들어진다. 차이나타운의 '조선족' 거리는 흥등이 걸려 있는 어두운 공간에 중국어 붉은 불빛 간판들이 난립해 있다. 길 거리에 물건을 방치해 무질서하며 지저분한 벽면 위에 찢어진 전단지들과 쓰레기가 있는 비좁은 골목은 악취를 풍길 것 같다는 상상을 하게 한다. 이곳은 '조선족' 패거리들의 폭력에 맞서던 기준과 희열이 쓰러져 정신을 잃는 곳이고 납치 여성들에 대한 구출이 실패하는 공간이다. 이에 반해 대림역 12번 출구 맞은편에는 파출소와 조용한 주택가가 자리하고 있다. 12번 출구에서 도림로를 건너면 안전하다. 골목은 깨끗이 청소되고 정비되어 있다. 기준과 희열을 쫓아 오던 조선족들은 파출소가 있는 이쪽 공간에서는 더 이상의 추격을 하지 못하고 멈춰 선다. 그들이 월경(越境)하지 못하는 공간인 것이다. 대림역 12번 출구를 기준으로 두 거리 공간은 안전과 불안전, 어둠과 빛, 깨끗함과 더러움, 인간적인 것과 비인간적(동물적/폭력적)인 것으로 대비된다. 12번 출구 차이나타운 거리 '조선족' 공간 재현은 혐오표현의 중심에 있다. 영화 속 대림동은 "우리 일상공간과는 완전히 고립된 범죄공간으로 기술"되고 있고, "불법이 판을 치는 부정적 다문화 공간으로 묘사"³⁷⁾되었으며 공간의 폐쇄성과 범죄성을

37) 최인규, 전범수, <영화 <청년경찰>, <범죄도시>에 나타난 범죄 장소로서의 다문화 공간 비교>, 《사회과학연구》 35(4), 2019. 11. 120쪽.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의 대립동은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보다 훨씬 안전한 곳이며 그 위험성이 과장된 측면”이 있고, 언론 매체를 통해 재현되는 강력범죄의 난무와는 거리가 있다고 분석한다.³⁸⁾ 한국 영화나 미디어가 왜곡하고 조작하는 ‘대립동’들이나 ‘조선족’들에 대한 혐오표현은 특정인들과 특정 공간(영역)에 대한 구분과 구획으로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며 이는 실제로 적개심과 증오심을 일으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영화적 재현에 더욱 신중하고 주의해야 한다. 최근 대립동에서 나고 자란 중국동포 아이들과 한국학생으로 구성된 ‘대립동 브라더스’가 대립동 인식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대립동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는 걸 멈추진 않아도 한 번쯤 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싶다”³⁹⁾며 공간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5. 나오는 말: <청년경찰> 판결과 봉합의 시작

<청년경찰>의 혐오표현에 대해 2020년 3월 16일 법원은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인종차별적 혐오표현물인 ‘청년경찰’을 상영함으로써 원고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 인격권, 타인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집단적·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인 행복추구권 등의 침해를 입었고, 절망감, 공포감, 사회생활의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이러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⁴⁰⁾고 판결하였다. 이는 1차 선고인 “청년경찰은 사실이 아닌 가상의 시나

38) 박미숙, 추지현,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년, 130쪽

39) 정현희, <EBS 다큐시선 대립역 12번출구, 대립동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한국강사신문》 2019년 7월 4일,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54> 2020년 7월 20일 검색.

리오를 기초로 제작됐고, 조선족 배역보다 한국인 산부인과 의사가 더 나쁘게 묘사되고 있으며, 감독이 원고들에 대해 악의적 의도로 영화를 제작했다는 증거도 없다. 또한 구체적으로 원고들과 범행에 관여한 조선족 배역을 연관지를 묘사도 없다⁴¹⁾는 것에 반한 판결이었다.

이는 2017년 만들어진 대립동 이주민과 지역민 합동으로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주민센터 친구>가 결합해 획득한 성과였다. 센터는 “영화 제작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외국인 집단에 대한 부정적 묘사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법부의 최초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법원이 피고 제작사에게 사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관객들에게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표현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함께 권고한 것은, 그동안 영화를 비롯한 미디어와 언론에서 조선족 동포를 비롯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혐오적 묘사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해 오는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한다. 단지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한 피고 제작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번 법원의 결정의 취지를 경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⁴²⁾ 사법부가 한국영화 속 중국동포와 ‘조선족’에 대한 혐오표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은 인간의 존엄을 강조하며 한국사회의 차별금지과 혐오표현에 대한 각성과 자각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경찰>에 대한 이런 소송과 판결 과정은 한국 내 한국인들과 중국동포, 나아가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성찰케 하며 상처의 봉합과 환대를 사유케 한다.

40) 이주민센터친구 보도자료, <영화 청년경찰 소송 법원 화해권고결정 제작사 <무비락> 원고들에게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http://www.chingune.or.kr/bbs/board.php?bo_table=B31&wr_id=98, 2020년 6월 18일 검색.

41) 구재준, <조선족, 영화 ‘청년경찰’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서앤올 법률사무소 판례, 2018년 11월 11일,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fides9999&logNo=221396200792>, 2020년 5월 4일 검색.

42) 이주민센터친구 보도자료, <영화 청년경찰 소송 법원 화해권고결정 제작사 <무비락> 원고들에게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http://www.chingune.or.kr/bbs/board.php?bo_table=B31&wr_id=98, 2020년 6월 18일 검색.

혐오는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⁴³⁾이며, 그것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우리는 구성되고 만들어지는 모든 비인간적 감정들을 거부해야 한다. 영화나 예술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혐오표현을 합리화하는 것에 대해 위와 같은 법률적 해석과 판결에 주목해야 하며 관객들 역시 영화 생산과 수용에 의도적 개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영화가 조장해내는 ‘조선족’과 ‘대림동’ 공간의 혐오적 재현과 표현 의미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영화가 소수자 집단에 대해 설령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나쁜 효과를 낳고 있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⁴⁴⁾음에 주의를 촉구한다. ‘우리’ 혹은 ‘한국민’이라는 동질성으로 만들어지는 타자들에 대한 혐오 재현과 표현은 경계되어야 한다. 그 동질성은 ‘우리’ 사회가 무단히 구성하려는 허구이기 때문이다. 허구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민음사, 2015.
- 박미숙, 추지현,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도서출판 어크로스, 2018.
- 류찬열, <혐오와 공포의 재현을 넘어 공감과 연대의 재현으로: 영화 《청년경찰》과 《범죄도시》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27, 2018. 04.
- 문재원, <고착되는 경계, 트랜스로컬리티의 불가능성 - 한국 영화에 재현된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28, 2015.
- 서지수, <서울 대림동의 조선족 ‘통로(portal)로서 장소성 형성>, 《지리학논총》 58, 2012.
- 송원찬, <경계인: 한국 미디어 속 조선족 형상 연구: 영화 <황해>와 <청년경찰>을

43)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민음사, 2015, 표지.

44) 홍성수, <영화 <청년경찰>은 혐오를 조장했는가?>, 《말이 칼이 될 때》, 도서출판 어크로스, 2018, 88쪽.

-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18(3), 2017. 12.
- 신정아, <회복적 정의의 실현을 통한 새로운 연대와 소통: <청년경찰> 판결에 나타난 한국 영화의 인권감수성>, 《2018 인문콘텐츠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발표집》, 인문콘텐츠학회, 2018.
- 최인규, 전범수, <영화 <청년경찰>, <범죄도시>에 나타난 범죄 장소로서의 다문화 공간 비교>, 《사회과학연구》 35(4), 2019. 11.
- 한희정, 조인숙, 신정아, <조선족에 대한 의사사회 상호작용과 유사현실 인식 연구 - 청년경찰(2017)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5(1), 2019. 02.
- 한기덕, <이주민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연구-외국인노동자와 조선족 뉴스 댓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7. 12.
- 홍성수, <혐오표현의 세 가지 유형>, 《자음과 모음》(39), 2018.
- 박승호,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방법>, 《법학논총》 31(2), 2019. 2.
- 구제준, <조선족, 영화 '청년경찰'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서엔올 법률사무소 판례, 2018년 11월 11일,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fides9999&logNo=221396200792>, 2020. 05. 04 검색
- 이주민센터친구 보도자료, <영화 청년경찰 소송 법원 화해권고결정 제작사 <무비락> 원고들에게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http://www.chingune.or.kr/bbs/board.php?bo_table=B31&wr_id=98, 2020. 06. 18 검색
- 정현희, <EBS 다큐시선 대림역 12번출구, 대림동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한국강사신문》 2019. 07. 04,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54> 2020년 7월 20일 검색
- 안용성, 윤지로, 배영민, <“가리봉선 밤길 조심·서래마을은 맛집 천국” ... 외국인 거주 지역 두 갈래 시선 [한국형 외국인 혐오 보고서]>, 《세계일보》 2020년 3월 24일, <http://www.segye.com/newsView/20200323515840?OutUrl=daum> 2020. 05. 04 검색.
- 이오성, <중국 동포 혐오증은 흥행의 보증수표?>,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148> 2020. 06. 04 검색.
- 김예랑, <같은 조선족 다른 느낌>, <http://hei.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9207134H>, 2020. 06. 04 검색.
- 장보인, <“극중 조선족 범죄자, 불가피한 설정?” ... 반발에도 계속>, 2017년 10월 19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019000508>, 2020. 06. 04 검색.

- <'범죄도시' 개봉을 앞두고 또다시 중국 동포사회 들썩이는 이유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002000207> 헤럴드경제 2017년 10월 2일자, 2020. 06. 03 검색.
- 최미량, <중국동포단체, "일부 영화들 차별적"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 2017년 11월 6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061636001&code=940202#csidxf2bc23b3550ee979c98931cb36a1aef, 2020. 06. 04 검색.
- 조성은, <"'중국동포=범죄자' 편견이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동포 혐오차별 철폐 범민족 통일대회' 열려>, 2019년 9월 9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56390?no=256390&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2020. 06. 04 검색.
- 조명아, <"영화도 예외 아냐", '조선족 혐오' 첫 법적 책임>, <https://news.v.daum.net/v/20200617202819731>, 2020. 07. 03 검색.
- <한중수교>, 다음 백과사전,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73749>, 2020. 07. 03 검색.
- 페스카마호 사건 https://ko.wikipedia.org/wiki/%ED%8E%98%EC%8A%A4%EC%B9%B4%EB%A7%88_15%ED%98%B8_%EC%82%AC%EA%B1%B4, 2020. 06. 03 검색.
- 오원춘사건, https://ko.wikipedia.org/wiki/%EC%88%98%EC%9B%90_%ED%86%A0%EB%A7%89_%EC%82%B4%EC%9D%B8_%EC%82%AC%EA%B1%B4, 2020. 06. 03 검색.
- 박춘풍사건 <https://ko.wikipedia.org/wiki/%EB%B0%95%EC%B6%98%ED%92%8D>, 2020년 6월 3일 검색.
- 김하일사건, https://ko.wikipedia.org/wiki/%EC%8B%9C%ED%99%94%ED%98%B8_%ED%86%A0%EB%A7%89%EC%82%B4%EC%9D%B8_%EC%82%AC%EA%B1%B4, 2020년 6월 3일 검색.

< Abstract >

A Problematic Reenactment of 'Korean-Chinese' and 'Daerim-dong'
in the Film "Midnight Runners"

Shin, Dongsoon

This paper tries to analyze how hate speech that causes discomfort and alienation in the "Midnight Runners" film, and the point and meaning of hate expression in the 'Korean-Chinese' and 'Daerim-dong' spaces that the film reproduces. The movie is starring police college students Ki-joon and Hee-yeol, and the film follows their gaze and it recreates hate speech 'Korean-Chinese'. Reproduces the 'Korean-Chinese' aversion through Yoon-jung's abduction and ova over-injections, organ trafficking, group assault and chase, gynecological ova extraction and mass fighting. It also recreates Daerim-dong as a place where criminals who should be deported live, not as a space in Seoul. It strengthens heterogeneity and causes fear. Surrounded by the Chinatown in Daelim-dong, 'Daerim Station Exit 12' is reproduced as a crime-maximizing space. With Dorim-ro in front of Exit 12 of Daelim Station in between, it is divided into 'Korean-Chinese' streets, which are spaces of day and night, creating boundaries and producing a sense of disgust. This paper examined how the point of 'Korean-Chinese' crime and the 'Korean-Chinese' space in Daerim-dong are distorted and compartmentalized at which point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narrative.

Key words: The film "Midnight Runners", hate speech, politics, symbols, production of meaning, hospitality, suture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20. 07. 31	2020. 08. 11 -08. 27	2020. 08. 21	2020. 08. 28	2020. 09. 30

